

설레임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

서울캠 지난 2일 입학식 진행...경주캠 오늘(5일) 문무관에서

2001학년도 서울캠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일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학부모와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캠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박상수(연영1) 군이 신입생 선수를 했다.

송석구 총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신입생들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꾸준한 학습과 함께 인격을 쌓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만해광장 곳곳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각 동아리들의 다양한 홍보 활동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신입생 이현진(문과대1)

양은 "동아리활동과 공부 모두 열심히 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이번 2001학년도 입시 결과 신입생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 전형결과 합격자 성적이 수능 상위 6.2%에서 5.7%로 오른 법과대를 비롯해 △블로그대 △이과대 △사회과학대 등 6개 단과대 신입생 성적이 많이 상승한 것이다.

특차 모집 역시 작년 대비 수능성적이 1%가량 상승했다.

한편, 2001학년도 경주캠 신입생 입학식이 오늘(5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송석구 총장과 오복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올해 경주캠 입학자는 2천293명으로 전제수석은 수능 표준편 환점수 397.23점을 받은 한의대 황민영(한의예)양이, 전체차석은 397.03점을 획득한 정영수(한의예)군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전제수석자 황민영양은 "동국인이 된 것도 자랑스러운데 수석까지 하게 돼 어리둥절하다"며 "부모님께 감사 드리고, 반드시 주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입학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입학허가선언 △신입생선서 △총장식사 △이사장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교무위원 소개 △교과제창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함박웃음...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아산에서 성공리에 진행됐다.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떠나기 직전, 추운 날씨와 흠날리는 눈발 속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의 표정은 시종 일관 밝기만 했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업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양캠, 교원 보직인사 단행 부총장 허천택·김재문 교수

본교는 지난 1일자로 교원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캠은 △부총장=허천택(영어영문학) △대학원장=조희영(경영학)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이황우(경찰행정학) △행정대학원장=이상현(경찰행정학) △경영대학원장=황용호(회계학) △교육대학원장=김현규(교육학)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김규석(건축공학) △문화예술대학원장=조승환(미술학) △법과대학장=한태식(선학) △법과대학장=연기영(법학) △경영대학장=김태홍(국제통상학) △생명자원과학대학장=오정수(산림자원학) △공과대학장=김병식(화학공학) △정보산업대학장=엄기현(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예술대학장=김홍우(연극학) △야간강좌교과대학장=김상종(경영학) △기획인사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 △대의협력처장=한태식(선학) △연구처장=최순원(국어교육학) △정보관리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신입 허천택 부총장은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할을 모으는데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주캠은 △부총장=김재문(법학) △블로그문화대학장=이만(불교학) △교무처장=이계영(컴퓨터학)이 임명됐다.

외국인학교 출신자 입학취소 논란 억울한 피해학생만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은 없다?

본교는 지난 1월초 2명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자의 입학 취소를 선언한 이후, 1월 31일 6명의 국내 외국인 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입학취소를 통보했다. 이들 6명은 외국 시민권을 가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해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1월 초 국내 12개 대학에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교 역시 2명의 학생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본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입학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학교 출신 학생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1월 31일 입학 취소 통보를 내리기 전 교육인적자원부에 입학취소여부에 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 학력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보낸 것이다.

무엇보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취소가 결정된 조은수 군은 "입학 당시 학교 입학 관계자는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며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던 지금에 와서 입학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선발실의 이종석 실장은 "6명의 학생들이 입학 취소를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본교 뿐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타대학들도 부정입학자와 국내 외국인 학교 출신자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입학취소자가 수 십명에서 수백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명의 학생들이 이미 입학취소를 받은 상태이지만 조은수 군의 법정소송으로 이번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은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6명의 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규정을 마련해 다시는 동일한 피해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해진 기자 atom@dongguk.edu

2001학년도 1학기 학사보고회

신임교원 소개와 각 부처 업무보고로 진행

2001학년도 1학기 학사보고회가 지난달 26일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학사보고회는 교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교원 소개, 각처 업무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처의 업무보고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인사처=2차 기관업적평가 시행 추진, 2002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과 강좌별로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점등록제 연구 △교무처=인터넷 강의 평가 점수의 교원업적평가중 교육업적분야 반영 추진과 교양 필수과목 책임 교수제 시행 △연구처=학술지 게재 범위를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의 발간물로 제한하는 것과 교육부문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1학

년도 교원업적 평가 개정 △학생처=각 사설로 장학금 지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지원금 유도를 하는 1사할 1장학생 운동 등 교외장학금 유치활동 계획 △사무처=제2도서관 건립, 교육환경과 연구실 환경 개선 계획 △정보관리실=무선 LAN설치 등이다.

송석구 총장은 "제2도서관이 신설되면 부족한 교수 연구공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비예산이 지난해 약 2200억에서 2630억으로 늘었다"며 "특히 의료원의 경우 17.5%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주캠 창업보육센터 벤처창업

일진정보 시스템, ERP프로그램으로 벤처기업 인정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변정용·컴퓨터학 이화 보육센터)는 보육중인 일진정보 시스템(대표=박희준)이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 공문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첫 벤처기업을 탄생시켰다.

보육센터 1기 모집업체로 입주한 일진정보 시스템은 지방의 지역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산업에 초점을 두고 특성화한 '자동차 부품 산업 ERP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벤처기업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일진 기업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해임처분 취소요청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본교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0월31일 해임된 본교 사회학과 김익기 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해 통보했다. 동 위원회의 공문에 따르면 이번 해임처분의 공문에 따르면 이번 해임처분은 학교법원 징계위원회 김익기 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을 요구하면서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김익기 교수가 지난해 12월7일 동 위원회에 해임처분 무효화요청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자번호(제1311호 2월 16일자) 중의외대학 총장 방문 기사 중 북경중의외대학을 상해중의외대학으로 정정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어렸을 적 색종이로 만든 종이배는 우리들의 순수한 꿈과 마음을 담아 시골 냇가에 띄웠습니다. 이제 커버린 우리 앞에는 동대신문이 있습니다. 동대신문이 만들어 가는 종이배에 독자 여러분의 삶과 고민을 실어 언론의 강에 띄우겠습니다.

동대신문사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 ~ 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054)770-2057

지면안내

- ▶ 대우차 노조시위현장을 다녀와서 4면
지난달 16일 1천 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인천 시내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대우차 시위 현장을 살펴보고 비뚤어진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 신규교수 프로필 5면
- ▶ 영화제목, 메이드 인 U.S.A.? 6면

보리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박 경 준 (블로그대 불교학부)

"무상(無常)이 빨라 몸은 아침이슬과 같고 목숨은 저녁노을과 같아서 오늘을 있을지라도 내일은 기약하기 어렵다" 부조 스님의 말씀이다. 또한, 원효 스님은 "보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나이트 사람은 닻을 수 없다. 백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 길래 닻지 않고 놀기만 하겠느냐"고 타이르신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며 안일과 타성에 젖게 되고 만다. 이러한 우리 범부 중생의 어리석음을 '잡미유경'은 한교조(寒苦鳥)라는 새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준다. 한교조는 그 이름처럼 추위의 고통을 겪는 새다. 이 새는 동자가 없어 밤이면 언제나 추위에 떨며 후회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날이 새면 꼭 집을 지으리라. 그러나 날이 밝아 따뜻해지면 생각이 곧 바뀐다. 이렇게 따뜻한데 굳이 집을 짓는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한교조는 빙동빈풍 게으름을 피우며 먹고 놀기만 한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이르면 이르다고, 늦으면 늦었다고 갖은 핑계를 대며 당당 할 일을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와 한교조는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동국인이 된 신입생들은 저마다 짜임새 있는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입시지옥에서의 고통과 긴장을 보상받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아예 작정하고 해방(?) 지향의 계획표를 짜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대학생활 4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몸과 마음의 나태함을 경계하는' 눈 푸른 출가 수행자들의 정진을 배우아야 한다.

여유와 자유는 필요하겠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우리를 고스톱처럼 하고 구속하며, 적당한 창조적 긴장은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사사령

임기만료

- ▶편집장 겸 사회부장 = 김진아(사과대 사학4)
- ▶편집부장 겸 대학부장 = 김미영(인문대 국문4)
- ▶문화부장 = 최은진(문과대 영문4)

신임부장

- ▶편집장 = 김은선(이과대 통계3)
- ▶편집부장 겸 사진2부장 = 박현호(인문대 국문3)
- ▶대학1부장 = 김현중(공과대 전지3)
- ▶대학2부장 = 최창호(자연대 수교3)
- ▶사회부장 겸 사진1부장 = 김윤미(사과대 북한3)
- ▶문화1부장 = 표은영(사과대 북한3)
- ▶문화2부장 = 김지혜(관광대 호텔경영3)
- ▶기획·학술부장 = 박지영(이과대 화학3)
- ▶여론부장 = 이소라(관광대 호텔경영3)
- ▶생활부장 = 정미혜(인문대 국문3)

- 이상 3월 5일자

발전기금 ARS 7000-119

2001년 1학기 특별 시험 교필 3과목에 한해 실시

2001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이 오는 10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응시과목은 컴퓨터 활용과 실습1, 실용영어1, 영어회화 등 모두 3과목으로 최대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A0를 부여한다.

신청은 오늘(5일)부터 7일까지 교무처 학사지원실에서 가능하며 전형료는 3만 원이다.

반성폭력 학칙 공청회 오는 10일 이대 소강당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의 일환으로 2001년 방향성 제시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10일 이화여대 소강당에서 열린다.

본교를 비롯해 서울대 등 10개 대학 총여학생회와 전국학생 대표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국의 대학 총여학생회가 참가해 지난 17일 총여학생회 연대회의에서 논의된 반성폭력 학칙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언어 체험이야기' 발간 신입생에게 무료 배포

출판부(부장=김병수)는 지난달 26일 '새내기에게 주는 언어 체험이야기'와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을 발간했다.

본교 영문학과 김정매 교수가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담을 모은 '언어 체험이야기'는 5천여권을 발행하여 신입생 전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은 소설과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의 서사 양식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강신청 정정 오는 6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확인·정정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정정방법은 정정원을 작성해 각 단과대 컴퓨터실습실에서 PC로 정정한 후,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과과목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정정원은 각 대학 교과과목과 학과사무실에서 교부하며, 최종 수강신청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제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심회기 교수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 탈락... 공정한 재심사 요청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심회기(법학) 교수가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심사 방법과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회기 교수는 연구업적평가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했으나, 인성 부문 등을 평가하는 심사평정평점이 정년보장 기준점수인 80점에 크게 못 미쳐 심사에 탈락한 것이다.

정년보장심사평정은 소속 단과대학장과 학장이 지정한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교원인사평가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처장이 평가하는 심사평정과 연구업적평가로 이뤄져 있다.

논문발표나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업적평가와 달리 심사평정은 △교수자로서

인격과 품위(10점) △인간관계의 원만성(10점) △대학 및 학과발전을 위한 노력(10점) 등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 오광진 인사관리팀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 심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한 번 실시했던 심사평정을 보다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99학년도 2학기부터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매학기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은 "평가 인위보다 평가절차가 중요하다"며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교수의 인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 재임용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 각 대학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사립대학의 교원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

연세대 교육학과 김민희 교수는 "대학사회의 교수 재임용이나 승진심사 과정에서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예외가 많았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비밀투표, 외부심사 등 여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는 지난 2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심회기교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오늘(5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시민단체, 김대중 교육정책 3년 평가 교육재정 6% 확보·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평가 토론회'가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주최로 지난달 21일 동송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학부모집장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평가 △대학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평가 △전문대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평가 △질의의 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민중 전교조 교섭국장은 교육부 부문 대신 공약 평가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부문을 개편해 공교육 후퇴와 무한입시경쟁 등을 불러왔다"며 공교육 강화와 GNP대비 교육재정 6% 확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상명대 박겨울 교수는 고등교육 부문 평가에서 BK21에서 나타난 대학의 서열화 현상과 미시적

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국공립대학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민주당 내의 개혁 움직임이 사학재단과 보수정치 세력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현섭 강원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남은 2년 동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플짱... 지난 1일 본교에는 '민해백일장'과 더불어 전통놀이 장이 마련됐다. 백일장을 마친 초등학교 아이들이 팔정도에서 신나게 줄넘기를 하고 있다. 김현중 기자 dizzy20@dongguk.edu

회전무대

기네스 새터

O...새터 중앙공원을 진행한 아산 실내체육관에서 새내기들은 색다른 경험을 해야했는데요.

알아보니 좁은 아산 실내체육관에 약 2천명이나 되는 새내기들이 들어가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점점 밀려드는 인파 속에 새내기들 자리가 없자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새내기 왈, "새내기 한계 체험, 아산 체육관에 몇 명의 새내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섬포 한모금

O...개강 다음날인 지난 3일 도서관 휴식을 가졌는데.

개강임에도 도서관의 휴관으로 책 대출과 반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러 열람실을 찾은 많은 학생들은 쓸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에 제 1열람실 폐쇄까지 더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도서관 쉬는 날에 학생들은 한숨 쉰다."

After Sign

O...다량관 잡화점에 사후 서비스는 기대도 말라?

개장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다량관 내 잡화점이 학내 복지시설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편, 잡화점 판매 품목의 사후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데.

일단 구입하고 나면 사후 서비스가 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철저히 지 못한 A/S(after service)에는 철저히 한 A/S(after sign)로 항의하는 게 어떨지..."

무대보

O...학내 흡연자들을 위해 만든 동국관 5층 흡연실이 텅텅 비어있다는데.

이유인즉, 학내 흡연자들이 흡연실을 놔둔채 계단이나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이는 흡연자를 위한 배려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왜 흡연실이 있는데 여기서만 피우요?"

흡연자 왈, "난 아무데서나 핀다!"

총학 등록금 납부연기운동 진행

지난달 19일부터 각 가정에 편지 발송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지난달 19일부터 단과대별로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각 가정마다 보냈다.

등록금 인상의 부담성을 알리는 글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는 오늘(5일)까지 문과대 등을 비롯한 3개의 단과대에 제외하고 공문 발송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예산상 문제로 편지 발송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은 지난달 24일 1차로 마감한 결과 80%이며, 2차 등록금마감은 오는 10일까지이다.

사무처(처장=황영수) 재무회계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등록금 추세로 볼 때 등록률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 수주액 30억 증가

2000학년도 본교의 연구비 수주액이 99년에 비해 약 3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모두 136억원을 수주 받은 것으로 99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구비 수주는 본교 교수가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의 황의돈 과장은 "연구비 수주액의 증가는 본교 교수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동정

▲곽문규(기계공학)=오늘(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SPIE's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Structures and Materials에서 논문 발표.

새터 인터뷰 새내기

"어울림속의 대학문화 기대돼"

새터 첫날밤을 보낸 후, 다소 부스스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신입생 김민규(연영1)군을 만나 새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 새터에 오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았나.
= 지난해 새터사고에 대해 들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반대한다는 사실도 집에 온 공문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 나와 집안 식구들 모두 개의치 않아 오는데 별 무리는 없었다.

-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 동아리들의 전체공원이 재미있었고 특히 락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교 때와 다른 대학문화라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 '통일', '운동' 등에 대한 느낌은.
= 솔직히 낯선 것이 사실이나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학우'란 말도 새터에 온 이후 선배들과 어울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쓰게 됐다. '통일'이나 '운동' 등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새터 인터뷰 재학생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계기"

지난해 새터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새내기 새터배움터(이하 새터)에 참가해 중앙공원에서 풍물 연주를 보여준 민속극 연구회 '달'의 이규성(사회3)군을 만났다.

- 새터에 참가한 동기는.
= 사고로 무산된 지난해 새터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무엇보다 새터를 함께 준비했으니 사고로 먼저 떠난 7명의 친구를 생각이 많이 났다. 지난해 함께 땀 흘렸던 친구를 뚝까지 준비하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

- 이번 새터를 평가한다면.
= 새내기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터를 접했다던 재학생은 앞으로

의 학교생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새터기간 중 7명의 사망 학생을 위한 추모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새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 이번 새터에서 느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보다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 보람있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

수강정정

2001학년도 제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기간 : 2001. 3. 6(화) ~ 8(목), 3일간
※ 야간 전공 및 교양과목은 3월 6일 오후 6시이후에 수강신청 정정 가능
- 장소 : 교내컴퓨터실
(과학관 1층 AH, 동국관 L동4층 LF, 문화관 2층 KJ는 제외)
※ 교내 실습실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PC 교체로 위 3개 실습실은 사용할 수 없음.
- 대상 : 전교생
-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 교부 : 각대학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
- 유의사항
가.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용 교과과목에 제출할 것
※ 수강신청을 정정하지 않는 학생도 반드시 확인원을 제출하여 함.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다.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조회 또는 본인 수강신청 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람.
라.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마.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상기 마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컴퓨터실습실에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 ※ 신입생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의 취득학점은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교무처

"젊음과 지성을 선보일 아름다운 커플을 모집합니다"

젊음과 지성을 선보이고 숨겨진 장기를 찾아내는 KBS 2TV '감성체널 @21 동국대학교 편' 촬영이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 촬영일시 : 2001. 3.22(목) 12:00~20:00
- 촬영장소 : 대운동장(예산)과 체육관(본선)
- 방송일시 : 2001. 3.28(수) KBS2 TV 19:00~19:50
- 참가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선착순 50커플
- 신청일시 : 2001. 3. 16(금) 17:00까지
- 촬영전 회의 : 2001. 3.19(월) 예정. 접수후 통보

☆ 최강의 커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접수 장소 : 학생처 학생복지실 (본관 3층)
※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48)로 문의요망

학생처

봄학기 외국어 특강

원어인 강좌

- 영어회화(15명 정원)
 - 단 계: High-beginning,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
 - 강의소개: 상황별 영어회화를 통한 단계별 학습, 반배치 테스트 및 학습평가 제공
 - 시 간: 오전 7:40-8:50(월,화,수,목), 오후 4:30-5:40(월,화,수,목)
- Screen English(30명 정원)
 - 강의소개: 영어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어와 영어듣기 감각을 높이는 강좌.
 - 시 간: 오전 7:40-8:50(월,화,수,목), 오후 4:30-5:40(월,화,수,목)
- Business English(15명 정원)
 - 강의소개: 실무 영어학습을 기반으로 Interview, Business Meeting & Presentation 중점 강좌
 - 시 간: 오전 7:40-8:50(월,화,수,목), 오후 4:30-5:40(월,화,수,목)
- Writing & Speaking(15명 정원)
 - 강의소개: 1:1 Error Correction방식,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글쓰기와 토론을 통한 학습 강좌
 - 시 간: 오전 7:40-8:50(월,화,수,목), 오후 4:30-6:00(월,수,금)
- 일본어 특별강좌(15명 정원)
 - 강의소개: 일어일문학과 전임교원
 - 시 간: 오후 6:00-7:30(월,수,금)

TOEIC / TOEFL 강좌

- TOEIC CLINIC (35명 정원)
 - 강의소개: 실제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 및 특점 향상
 - 시 간: 오전 7:40-8:50(중급반: 월~목), 오후 5:00-6:30(초급반: 월,수,금) 오후 6:40-8:10(중급반: 월,수,금)
- TOEFL(35명 정원)
 - 강의소개: 유학 준비 및 영어실력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영어반
 - 시 간: 오후 6:30-7:40(월,화,수,목)
- WEB TOEIC(수강생을 위한 특선)
 - 외국어 특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Web TOEIC을 무료로 수강(3월 9일 마감)
 - 강의소개 :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원하는 토익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좌

특강기간: 2001년 3월 12일(월)-4월 20일(금)
접수기간 : 2월 26일(월요일)부터 선착순 마감
수강료 : 80,000원(Writing & Speaking : 100,000원)

언어연구교육원

연론사 세무조사 논란과 필요 논단

'세무조사 무풍지대'에서 언론개혁으로

한국정치는 전형적인 금권정치다. 과거 정권들은 정치자금 조달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악용했고 그런 연유로 세무조사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일반기업도 아닌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갑자기 효과'를 노린 정치적 술책으로 이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은 여론의 조작과 통제 등을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권력도 언론과 밀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권의 영속화를 기도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아 정치권력 못지 않게 막강해진다. 그래서 조세권도 언론을 의도적으로 비껴간다. 지난 7년간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도 그 까닭이고 같은 이유로 김영삼정부도 세무조사 결과를 못 본 척하고 묻어 버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언론과 적대관계를 갖는 무모한 모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언론사는 조세권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증빙 경영이 점점 심해지면서 신문판매시장은 대단히 문란해졌다. 전국의 신도시 이삿짐은 신문사가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엄청난 양의 키보나 에어컨팅

선종기도 신문사들이 구독자 수를 늘려나가는데 한 몫 했다. 이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의 대상이다. 제지회사에서 적지 않은 리베이트를 준다는데 회사계좌로 입금되는지 사주 주머니로 가져갈지 알 수 없다.

특별·재벌언론의 부정행위

특별신문이 어떻게 지분변동 없이 3~4대 세습경영이 가능한지도 주목해 봐야 할 일이다. 재벌신문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국 각지에 분공장도 많이 있고 운전기도 많이 수입했는데 가격을 과다계산하여 돈을 빼내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다. 그 많은 계열사를 설립했는데 주식지분은 어떻게 변동됐는지 궁금하다. 광고단가를 임의로 책정하고 허위 영수증도 예사로 발행하니 마음만 먹으면 비자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무풍지대이니 회계 자료를 완벽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언론사나 탈면 면지가 날 법하다. 조직적인 회계분식과 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계요류는 얼마든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장상위 3개 신문사만이 유독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한국언론이 이를 정치적 호기로 알고 맞장구를 친다. 정황적으로 봐서 언론장악을 노린다는 심증이 가더라도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허언과 욕설만 내뱉는 정당 대변인의 입에 매달려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신문사들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한다면 언론장악이라는 재단이 가능하다. 추정세액을 감면한다든지 사주의 비리를 포착하고도 그것을 언론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말이다. 조사착수 자체를 언론탄압으로 간주한다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소리다. 그런데 기사전개를 보면 누구를 감히 건드리느냐는 투이다. 한국언론은 조세권마저 배척할 만큼 권력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말하고도 남는다.

언론개혁, 시발점은 소유분산

한국언론이 지닌 고질적 문제는 권언유착에서 연유한다. 32년이라는 정치권언의 장기집권도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언론은 군사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고 나선 대신 대가로 거액의 자, 조세특혜와 같은 부당이익을 향유했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특위위원장

불법, 탈법 비리도 보호받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왔다. 그래서 사회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에 저항한다. 대부분 신문사의 소유구조는 1인 지배체제로 사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사주가 경영권과 편집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의 가치관이 언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지면에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소수의 사주가 신문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여론시장 지배를 통해 거액의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언론개혁의 시발점은 소유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시비를 불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하나 뿐이다. 조사과정과 비리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부를 뿐이다. 집권여당은 경영 투명화와 시장 정상화가 언론개혁의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일본 중학생들을 걱정하며

최근 일본에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왜곡 기술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를 약속했다. 이 선언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이같은 일이 더욱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경축사를 통해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 또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많은 단체들의 왜곡탄압집회와 상명 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를 알리는 특별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움의 주체가 되는 일본 중학생들은 이같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35년간 우리나라에 대해 굴욕적인 식민통치를 자행하고도 '한·일 합방'을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라느니 '국제관계의 원칙에 기초한 합법'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 일본임을 알고 있는지.

과거를 잊기보다 현재를 읽어야 하며 '역사'를 배우기보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장차 21세기 주역으로 자라날 일본 중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특히, 역사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비록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혹은 오욕의 역사일지라도 오늘과 내일을 향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일본 중학생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 것은 거기에 바탕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공부한 그들이 먼 훗날 어리석은 국민으로 전락해버릴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기 때문이다.

경주캠 등협에 나타난 문제들

이미 학교측과 몇 차례 논의를 갖고, 등록금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이 시기에 경주캠퍼스학생회에서는 대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대개특) 위원들간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만한 등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앙운영위원회는 경주캠의 자치권 확보와 보다 원활한 등협을 위한다는 취지에 대학개혁특별위원회를 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개특이 그동안 진행해온 등록금 협의 과정상의 오류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달 19일 졸업식 때 총장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학생회측에서 시간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둘째 대개특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대개특 자체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 점, 셋째 등록금 협의의 주체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채 등협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이다. 더욱이 대개특 위원장은 등록금 동결만을 외치며, 등협의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등협 진행상황이 밝지않은 것이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총장간담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학생회측과의 등록금 협의를 보류하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의 확보와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에 쟁점을 두는 것이 아닌 복지요구만을 수용하는 선에서 등협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대개특에 등협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미온적인 움직임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바탕을 두면서 학생들이 중심되는 등협, 이와 동시에 대개특 위원들간의 결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공청회나 여러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등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은 학생회측이 주장하는 실질 책임자의 협의참여를 받아들여 학내구성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1학년도 학번 전공결정 결과 분석

단체 특성살린 보완조치로 극복해야

작년 12월 실시된 2000학년도 입학생들의 1차 전공결정 결과,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비인기학과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문화학·독일학·아시아지역학에는 단 1명이 배정됐고, 불교학·철학·북한학은 2명, 그 외에도 배정인원이 한자리인 학과가 10여 곳에 달한다.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과대학마다 신청조건이나 지원자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1차 전공결정결과로 제도상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공과대의 경우 선발제한을 완화해 대부분 학생본인이 지원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경영대는 4가지 엄격한 제한을 두어 배정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집단위 광역화 이후 사회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편향된 전공선택이 가까운 시일내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의미하는 '비인기학과'에 대한 문제는 그 전공을 선택안하는 학생을 탓하기보다 이제는 비인기학과를 '인기학과'로

만드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교 문과대의 경우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지원폭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여 전공을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주고자 1차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음 학기에 선발한다. 이는 문과대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과대 김대욱 교학과장은 "현재 사학, 철학, 윤리학과 같은 기초 인문학은 정보화시대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정확히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식(화학공학) 공과대 학장은 "각 전공 특성상 3년 이상 공부야 필요한 전공도 있다"며 개정된 전공결정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했다. 그리고 편중현상에 따른 대안으로 각 단과대학의 학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전공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한 북한학과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과학생회가 홍보영상물



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입생 유치'에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 장오영(경제학) 사과대 학장은 "학교당국이 제시한 △복수전공제 활성화 △학업지도교수제의 활용 △학과별 취업지도·추천활동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전공을 결정하기까지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전공결정 때 전공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은 3학기를 이수하게 되는 오는 6월말 잔여정원에 한해 결정하게 된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인기학과·비인기학과'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공결정제도가 시류에 맞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뿐만아니라 세부적으로 마련된 보완조치를 단과대 특성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1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 1. 피견기간 : 2001. 9. ~ 2002. 8. (1년)
2.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Table with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Rows for USA (미시간주립대학) and Japan (대정대학).

* 지원자격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자는 지원 불가.

3. 피견조건

- 가. 본교측
1) 피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미국 미시간주립대학 파견 학생의 경우는 72%)를 장학금으로 지급(감면)함.
2) 피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수 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며,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 함.
*석·박사과정의 경우는 본교 대학원 관련규정에 따름.

나. 해당대학측

Table with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수혜조건. Rows for USA and Japan.

4. 전형방식(총점 400점 기준)

Table with columns: 구분, 학교성적, 해당국 언어능력시험, 일반면접. Rows for English and Japanese.

5. 신청서류

- 가. 교환유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 학부과정 성적 포함
라. 언어능력시험 인증서-미국 MSU 지원자의 경우 TOEFL 성적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그 외는 소지자에 한함

6.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 3. 5(월) ~ 3. 14(수), 국제교류실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2001. 3. 16(금) 14:00 ~ , 국제교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 2260-3876, 본관 2층) 로 문의 바랍니다.

취업 박람회

- 1. 행사명 : 대졸자 및 청소년 서울 취업박람회
2. 주 최 : 서울지방노동청
3. 후 원 : 강남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일경제신문
4. 일 시 : 2001. 3. 6 (화) 10:00~17:00 (제1부 10:00~13:00, 제2부 14:00~17:00)
5. 장 소 : 삼유센터 2.3층 전시장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현대백화점 맞은편)
6. 행사대상
· 사업체 : 180개업체, 구인수 450명 (1. 2부 각 90개사 225명 구인)
· 구직자 : 2,500명(1. 2부 각 1,250명)
대졸자 및 청소년(18세~30세 이하) 구직자
7. 행사내용
구분 행사내용
취업박람회 대졸자 및 청소년 구직자와 기업체간 현장 면접 10:00~17:00
직업선호도검사 당일 접수 후 즉시 검사 실시
해외취업 및 자격증 취득 안내 해외취업 상담 및 유망 자격증 취득 안내
취업상담 창구 운영 WORK-NET을 이용한 취업상담
직업의 세계 비디오 상영 다양한 직업에 대한 비디오 상영
8. 참가신청
· 사업체 : 관할고용안정센터에 2. 26(월) 12:00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 구직자 : 행사 당일 신청 접수
9. 문의처 : 관할고용안정센터 ☎ 1588-1919

서울지방노동청

사회봉사단원모집

- 2001학년도 불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대 상 : 재학생
2. 신청서접수기간 : 2001. 3. 5(월)~3. 9(금)
3. 봉사활동기간 : 2001. 3. 12(월)~2001. 5. 31(목)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안내책자는 봉사단에 비치되어 있음.
4. 학점인정 : '불'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인정
*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기까지 인정함.
* 학점인정시기 : 2001학년도 1학기
5.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 3층 학생복지실 내 ☎2260-3049)
6.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70여개 단체 (봉사활동내용 : 500여개 프로그램)
7. 예 비 교 육 : 2001. 3. 10(토) 08:00~16:30
* 집결장소 : 본관 중앙당 8시 20분까지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캠 참사람봉사단

연구처

동약문

새터 만세



“야, 우리 조 모임 왜 안 나왔어?”
 “미안하다. 새터 끝나고 처음 보네”
 지난 2일, 입학식이 진행된
 만해광장은 대학생들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의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스탠드를 가득 메운
 신입생들은 다들 언제 친해졌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시종일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입학식 행사가 끝나고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뒤를 따라 혹은
 단과대 깃발을 따라 줄지어 이동한다.
 “작년 우리 입학식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새터에서 재미있었는지 그새 다들
 친해진 거 같아”
 신입생들을 인솔해 가며 나누는
 이들의 대화는 올해 입학식 풍경이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입학식 내내 누가
 동기인지 선배인지, 단과대 깃발을
 따라가야 하는지 마는지를 고민해야만
 했던 작년 신입생들의 모습에 비하면
 올해 신입생들은 벌써부터 친한 동기와
 선배며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이다.

새터를 경험하지 못했던 00학번들은
 입학식의 풍경이 지난해와 다른 이유를
 대부분 새터로 꼽는다. 지난해 미시령
 사고로 무산된 새터 때문에 학교당국은
 자숙의 의미로 올해 새터를 불허했고,
 총학생회는 새터사고를 기리기
 위해서라도 가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교와 학생회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새터
 일정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올 해 새터 성사여부에 대한 각층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터의 주인공은 신입생이라는
 것이다. 모집단위광역화와 학부제
 실시로 대학의 공동체적 특성이 퇴색한
 요즘,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문화인 새터는 누구의 눈도 아닌
 신입생의 눈으로 볼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대우차 노동자 부평시위 현장

정리하고 통지서 1750장

무장경찰 시내곳곳배치... 노동자들 '게릴라시위'

인천 부평역. 요즘 그 곳에 발을 내딛으면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부평역 광장을 한치의 틈도 없이 무장
 한 전경들이 둘러싸고 있고 주위를 지나가
 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
 하다.

“골목마다 빠짐없이 배치된 전경들 때
 문에 시내를 둘러보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택시기사 권기민(37)씨의 말처럼
 지금 인천 민심은 흉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달 16일 대우차 노
 동자들에게 보내진 정리하고 통지서로부터
 시작됐다. 부실경영이 초래한 위기에서 벗
 어나기 위해 대우차 경영진이 선택한 것은
 노동자들의 정리하고였다. 정리하고 직전
 노조는 ‘무급순환휴직제’를 실시하는 대신
 정리하고만은 피해달라는 요구를 제시했지
 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무급순환휴직제를 도입해 발생하
 는 비용절감 효과는 정리하고와 별다를 바
 없다. 하지만 2월까지 4대부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와 눈에 보이는 구조
 조정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한 경영진은 오
 직 정리하고만을 주장했다. 결과는 정리하
 고가 도입된 뒤 최대규모인 1,750명의 노
 동자와 가족들이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
 는 것이었다.

이후 정리하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시
 위가 인천시내 곳곳에서 계속 이어졌다. 경
 찰은 부평역 근처의 시위 노동자들은 물론
 행인에게까지 무리하게 신분확인을 요구하
 고 심지어 성당까지 전경이 난입해 노동
 자 뿐 아니라 일반 신자까지 연행하는 등 시
 민들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경들의 원천 봉쇄로 집회를 여는 것이
 힘들게 되자 대우차 노동자들은 시내 곳곳
 에서 기습시위하는 방법을 택했다. 28일 인
 천 계산역에 갑자기 나타나 ‘게릴라 시위’
 를 벌인 노동자들은 시위 후 농성의 주무
 대로 삼은 산곡 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집
 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우차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쥐어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은 “대우차 문
 제는 단순히 대우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
 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라며 대우차
 노동자들의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

대우차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대우차 정리하고와 노동
 자들에 대한 탄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우중 체포 결사대’가 프랑스에서 활동
 을 벌이면서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포 결사대는 복수노조 설립을 5년



지난달 28일 대우차 노동자들이 농성의 거점으로 삼은 산곡성당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국회를 ‘결사의 자유
 위반’이란 이유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복수노조 금지
 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는 말처럼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급속
 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
 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서서히 불기운이 밀려들고 있지만 대우
 차 노동자들에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겨
 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대우차에 들이댄 구조조정의 메스는 대우
 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에
 쉽게 팔아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
 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산곡성당 좁은 뜰에 있는 아이들이 동
 네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하고된 노동자의
 아내 이옥선씨의 소망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범

“알맹이를 바꾸자”

“3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공약은
 거짓이었습니까?”

지난 1일 서울역 광장에서 김대중 정부
 의 정책을 비판하는 ‘개혁 실종 규탄 3·1
 시국대회’가 벌어졌다. 이날 민주화를 위
 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박거용(상명
 대 영어교육학) 공동의장은 “개혁은 온데
 간데 없고 겉데기만 바꾸고 있다”며 부패
 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그리고 국
 가보안법 폐지의 3대 개혁입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개혁민생법안의 조속한 처
 리를 촉구하며 요구해 왔지만 이번 임시국
 회에서도 이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
 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
 집, 시민들이 직접 사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교협·참여연대·민주언론운동시
 민연합 등 200여 개의 시민운동 단체가 모
 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
 의)를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개혁
 실종 규탄 3·1 시국대회’에 참여해 시민
 들이 원하는 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실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올바
 른 투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3대 개혁입법·교
 육·연료 등 시급한 개혁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운동을 벌일 것이다. 또한 총선연대
 와 같은 한시적 결집이 아닌 상설연대기구
 로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개혁활동을 전
 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편견 일람표 1순위 ‘여성’

상식의 논리가 실제로는 편견이 아닌지 되돌아 보는 것 필요해

여성, 나란히 서기!

여성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본사 사회
 부는 갈 길이 먼 여성의 평등한 인
 권확보를 위해 3회에 걸친 기획을
 다루고자 한다.

- ①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 현실
 - ② 경제위기로 다시 불거진 여성 노동문제
 - ③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편집자

편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공정하
 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특정한 담론의 구조 속에서 인식의 체
 계를 갖추어 가는 인간에게 편견은 가
 장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일 것이다.

얼핏 떠올려 보지만 해도 장애인, 동성
 애자,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 지역
 에 대한 공정치 못한 생각 등 편견의
 일람표를 짜기보다 그 반대편의 항목
 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우리는
 편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세상 만
 물과 존재에 대한 지극히 사심없는 인
 식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
 인다.

그러나 이 불가능성 때문에 편견이
 라는 자기 속의 혹은 이 세계 속의 높
 은 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필요하
 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자기성숙의 지름길이자 다른 사람들과
 나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본원적
 인 방법인 것이다.

수많은 편견의 일람표 속에서도 가
 장 뿌리깊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여

성에 대한 생각이다.

‘여자가’로 시작되는 일상 언어들은
 대부분 여성에 대한 지독한 편견의 소
 산이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
 견이 어느 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생
 각인 것처럼 진리로 자리잡는 데 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차이의 개수나 두
 개골 무게의 차이를 들어 여성의 열등
 성을 객관화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저
 웃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편견은
 단순히 그릇된 인식의 일부로만 치부
 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실제적인 차별
 과 억압을 낳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성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역할구분
 인 양 여겨지고 있는 성별분업구조 역
 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당하지 못
 한 구조적 모순의 산물일 뿐이다. 그런
 예도 이 모순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편견이라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
 이다. 편견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것을
 당연하게 만들며 결국 대상에 대한 사
 회적 차별을 숨기고 폭력을 정당화한
 다.

수많은 아까운 여자들이 이러한 편
 견의 폭력 속에서 자기 재능을 펼쳐보
 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에너지를 찾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린다. 일하는 여성
 들이거나 집업 주부이거나, 소녀이거나
 성성한 여자이거나 간에 여성들은
 대체로 이성적, 합리적 능력면에서 남
 성에 미달한다고 부정적으로 판단된
 다. 여성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폄하
 는 여성들의 공적 공간 진출을 막는 사회
 적 차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
 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은 감성적이며 배려하는
 존재라는 칭송 역시 여성에 대한 편견
 이라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착한 여자
 에 대한 칭송은 수동적인 여성성을 만
 들어 뱀으로써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일종의 가부장제의 음모이기
 쉽다. 여성에 대한 비난과 칭송은 항상

한 몸을 이룬다. 여성은 남성보다 합리
 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다른 한쪽
 에는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라는 칭송
 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공적
 공간에서 남성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보살핌의 노동이 적합한 존재라고 규
 정된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수많은 배운 여
 성들은 합리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간이 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인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훨씬 더 자의식적
 으로 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 여성들이 생존의 전장에서
 벌이는 전투의 고통스러움과 불안은
 생각해 봐야 한다. 상식의 논리가 실상
 은 편견이 아닌가에 대해 우리 정신의
 피부 속에 딱 달라 붙어있는 그것들을
 낫살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당신과
 나의 믿음의 체계가 타인에 대한 폭력
 이자 그릇된 이데올로기의 주입의 결
 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김 은 하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2001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안형택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Wisconsin Madison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Wisconsin Madison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전 Virginia Polytec. Ins. & State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조교수
- 계량경제학 전공



최영균
경영대학 광고학과 전임강사

-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졸
- Michigan 주립대 광고학 석사학위 취득
- Michigan 주립대 광고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양대 강사
- 광고론 전공



강호덕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전임강사

- 본교 임학과 졸
- Iowa 주립대 forestry 석사학위 취득
- Iowa 주립대 forestry 박사학위 취득
- 전 산림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 조림·육종학 전공



권승구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전임강사

- 본교 임학과 졸
- 본교 농업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농업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식품산업경영 전공



김삼동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
- 서울대 금속공학 석사학위 취득
- Stanford 대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 연구교수
- 반도체 공정 전공



백낙훈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전임강사

- 한국과학기술대 전산학과 졸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학위 취득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BK21 조교수
- 컴퓨터 그래픽스(게임제작) 전공



한철호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전임강사

- 고려대 사학과 졸
- 고려대 사학 석사학위 취득
- 한림대 사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고려대·순천향대 강사
- 한국 근·현대사 전공



안재섭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임강사

- 본교 지리교육과 졸
- 서울대 지리교육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지리교육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서울대 강사
- 경제·도시지리학 전공



정진현
영상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전임강사

-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졸
- Academy of Art College Computer Arts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정보통신공학과 겸임교수
- 컴퓨터 미술 전공



전승일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서양화과 졸
- 본교 연극영화학 석사학위 취득
- 전 서강대 영상대학원 계약교수
-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공



윤영해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본교 선학과 졸
- 서강대 종교학 석사학위 취득
- 서강대 종교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Post-Doc 연구원
- 종교학 전공



송민영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 국민대 영어영문학과 졸
- 고려대 영어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 GeorgeTown 대 언어학 박사학위 취득
- 전 국민대 강사
- 의미론과 화용론 전공



강범주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 전자공학과 졸
- 연세대 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
- 연세대 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발기 모델연구팀장
- 무선통신 전공



장규태
한의학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과 졸
- 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경주한방병원 전임의
- 한방소아과 전공



김근우
한의학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한의학과 졸
- 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우신향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 한방신경정신과 전공



김정석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건국대 의학과 졸
- 전 본교 분당한방병원 전임의
- 진단방사선과 전공



신동필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과 졸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북대 의학 박사과정 재학 중
- 전 경북대 전임의
- 성형외과(수부 및 미세수술) 전공



김도군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과 졸
- 전 본교경주병원 전공의
- 산부인과(종양학) 전공



고병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의학과 졸
- 경희대 의학 석사과정 재학 중
- 전 경희대 임상강사
- 정형외과(슬관절) 전공

잡안소식

초등생, 위안부 다큐 제작

서울 남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12분 분량의 다큐멘타리를 제작해 화제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볼래?”라는 제목의 이번 작품은 6학년 2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배우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제1회 전국 초·중·고교생 즐거운 역사 만들기 대회”에서 백상상(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인터넷 교육사이트 ‘(주)즐거운 학교’ 홈페이지(http://www.njayschool.net)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 다시 수면위로

오는 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중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문화연대의 움직임이 거세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될지 모른다는 말이 떠돌아, 우리 영화인들의 주위에는 긴장이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지난달 27일 한국동 트너니무카페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김 대통령의 방미까지 계속적으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독립예술 지원사업 실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김정욱, 이하 문예진흥원)이 독립예술활동의 움츠렸던 날개에 힘을 실는다. 독립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벌이는 문예진흥원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연예술, 전시예술, 영상예술 분야이며, 오는 16일까지 문예진흥원 공연예술팀에서 접수받는다.

국내 만화, 북한과 하청계약

북한이 국내 애니메이션업체에 이집프로덕션(회장=벨스 신)에서 제작중인 극장용 만화영화 ‘왕후 심청’의 하청을 맡았다.

북한에서 제작할 분량은 총80분 중 40분으로 레이아웃과 원화, 배경 등의 작업을 맡게 된다. 이는 북한의 하청 가격이 타국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남북 문화교류의 차원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왕후 심청’은 지난 98년 기획에 들어가 현재 스토리보드를 제작중이다.



영화 제목, 메이드 인 U.S.A.?

상영작품명 대부분 영어 ... 언어제국주의 우려돼

‘배수집가’, ‘여자들이 원하는 것’, ‘내던져지다’ 등의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된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는 얼마 전 개봉된 수입영화 ‘본 콜렉터’, ‘왓 위민 원트’, ‘캐스트 어웨이’를 직역한 것이다. 외화의 대부분이 헐리우드 지배영화인 우리나라에서 영어 원제 쓰기는 보편화된 현상이다.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원어로 된 제목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최근 개봉작인 ‘버티칼 리미트’를 보고 난 한 관객은 “영화를 보고 나서야 제목의 의미를 대충 짐작했다”며 “대부분 영화의 제목이 영어라 일일이 해석하기는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의 속어나 관용적 표현이 제목에 그대로 쓰일 경우, 관객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외화 수입·배급사 중 하나인 ‘백두대간’의 한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원제를 그대로 쓰는 편”이라고 말해 영어 원제 달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것을 단순히 마케팅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목이나 이름을 지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 ‘이름쟁이’의 운영자 최기수 씨는 “무조건 원제를 그대로 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제목마케팅을 고려해 본다면 의역해서 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어 원제 붙이기’ 현상에 대해 본교 황종연(국어국문학)교수는 “영화의 제목을 원제 그대로 쓰는 것은 영어에 대한 뿌리깊은 숭배를 뜻하는 것으로, 영어제목은 특별히 좋은 제목이 아니어도 이국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당연히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화 제목을 원제 그대로 붙이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늘어난 현상이다.

문제는 외화 뿐 아니라 국내 영화도 영어제목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싸이렌’, ‘리베라 메’, ‘클럽 버터플라이’, ‘인디언 썸머’ 등 제목만으로는 외화로 착각할만한 국내 영화들이 바로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영화를 수입하게 되면 그 제목을 대부분 일본식으로 번역한다. 그에 비해 국내 영화마저 영어 제목 붙이기를 선호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영어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이며 세계관의 표현이므로 언어를 쓰는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때이다.

손상민 기자
nec9292@dongguk.edu

버티칼 리미트, 인디언 썸머 등 뜻 모르고 보는 관객 태반



일본인 참회극 ‘아, 제암리여!’

“이제는 속죄하고 싶어요”

한 세기가 가고 새 세기를 맞아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몸에 밴 습관과 낡은 이데올로기, 그리고 일본의 망언이다.

독도 관련 망언에 이어 최근 태평양전쟁 관련 망언을 일삼던 일본은 이제 역사의 흐름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봄 일본 7개 출판사가 문부성에 제출한 교과서 검정신청에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경 학살사건 등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말하

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추세 속에서도 과거의 만행을 속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3·1절을 맞이해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 ‘아, 제암리여!’는 일본인이 제작·출연한 참회극이다.

이 작품은 3·1 만세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23명의 제암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으로, 지난해 동경에서 초연돼 일본 내에서도 참회의 목소리를 끌어낸 바 있다.

이야기는 한 일본 목사가 과거를 속죄하는 뜻으로 제암리에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주민들의 입장은 물로 나뉘고 갈등이 고조되지만, 마지막에 피해자 유가족이 처용무를 춤으로써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처음에 아내를 범한 역신을 용서하였듯이 참상을 저지른 일본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극장을 나서던 최지혜(22) 씨는 “사죄의 뜻은 알겠지 만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번 공연이 해묵은 감정의 앙금을 없애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감상을 말했다.

3차 일본문화개방 덕분에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과거의 만행에 합당한 사죄는 커녕 진실조차 왜곡하려는 태도는 잘못을 청산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만 될 뿐이다.

예술 분야에서 싹튼 화해의 씨앗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보상 요구와 일본의 전국민적 참회라는 자양분으로

달하나 천강에



목정배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내안의 장엄함

동해의 해돋이를 보고서 장엄한 자연을 보았다고 한다. 서해의 해변이름 보고서도 장엄한 노을을 보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설악산의 토왕성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을 ‘장관이다’, ‘장엄하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일상을 벗어난 자연현상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장엄(莊嚴)’이라고 말한다. 장엄이란 잘 꾸며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이 예술적 조형이나 음색을 자아낼 때도 장엄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온갖 생명이 서로 얽히고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삶의 힘이 우러나고 삶의 빛이 용솨음치는 생기가 발동하는 자연이 바로 장엄한 것이다.

화장을 잘 하였거나, 옷매무새를 곱게 단장하였거나, 집치장을 멋있게 한 것을 장엄이라 하면 그 어감이 맞지 않는다. 사실 장엄이라는 말 앞에는 ‘화려(華麗)’라는 말이 붙기도 하여 화려장엄이 된다. 화려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재구조 예술화한 것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사실 화려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군가 만들고 꾸며 치장한 것이 아니라 춘하추동 풍살에 자라나는 자연이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인위적 미감이 앞서 걸모양을 뽐내고 살려한다. 머리모양, 옷가지, 귀걸이, 코걸이, 허걸이 아니 온통 제 몸을 새로 꾸며 맞추려 하니 그 몸풀이 얼마간 그냥 보아줄 수 있는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싫증이라는 요물이 또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 망가진 몸풀을 다시 꾸며보려 애간장을 태우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웃을 꾸미려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장엄하려고 조금만 힘쓰면 좋을 것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착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타난다. 눈빛이 맑아지고 웃음빛이 나타난다. 내 마음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면 손이 부드럽게 되어 모든 사물을 쓰다듬어 보려는 행위가 나온다.

기계적인 컴퓨터 앞에서 온갖 정보를 쟁겨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다. 컴퓨터 인터넷 속에는 무량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어 클릭 한번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무수한 선인(善因)이 인터넷의 그물처럼 함정되어 있기에 이 마음의 인프라를 클릭하면 나 자신이 자연의 장엄미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인터넷을 훑어보자.



극중 일본인 서장과 주민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 장면. 꽃필 때, 일본은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매체비평

오썬

분장실

"스스로를 감추고 분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다!"



그들만의 무대를 준비하는 '분장실'의 세 귀신.

사람들은 자기를 여러 형태로 치장하거나 분장한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예쁘게, 무섭게 혹은 기괴하게.
연극 '분장실'은 무대 위 연극공연에 앞서 분장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곳을 떠나지 못하는 배우들의 이야기이다.

며 연기연습과 대사암기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분장실을 사용하는 젊은 여배우와 정신이상증세로 입원했다가 갓 퇴원한 젊은 프로프터(결국 이 프로프터도 젊은 여배우가 휘두른 술병에 맞아 귀신들의 분장실에 합류하게 되지만)는 두 귀신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매개체이다.

하는 귀신들의 형상이다. 바로 돈, 권력, 명예, 부귀 등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작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일깨우고 있다.

젊은 여배우의 프로프터가 귀신들과 합류하면서 '분장실'의 귀신들은 그들이 할 일을 깨닫게 된다. 집착과 미련을 떨치고 그들만의 무대를, 더 이상 프로프터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표은영 문화부장 pik20@dongguk.edu

지역 문화에 젊은 피를 수혈하라

소비·향락 문화 판치는 '대학 전유 문화'에서 '지역 공유 문화'로 거듭나길

목막에 핀 배움꽃, 녹두꽃, 통일꽃

녹음이 짙은 8월이면 목막골에 배움의 한마당이 열린다. 바로 사범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배움을 즐거움으로, 가르침을 희망으로, 우리동네 진짜학교 남산골 서당'이다.

연극은 대중제의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축제의 장이다. 통일한마당 또한 초가를 백상예술제전 폐막식 행사로, 행사 내용은 녹두거리축제와 비슷하지만 학생과 지역민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남다른 의의가 있다.

젊음 꿈꾸는 온방골 세상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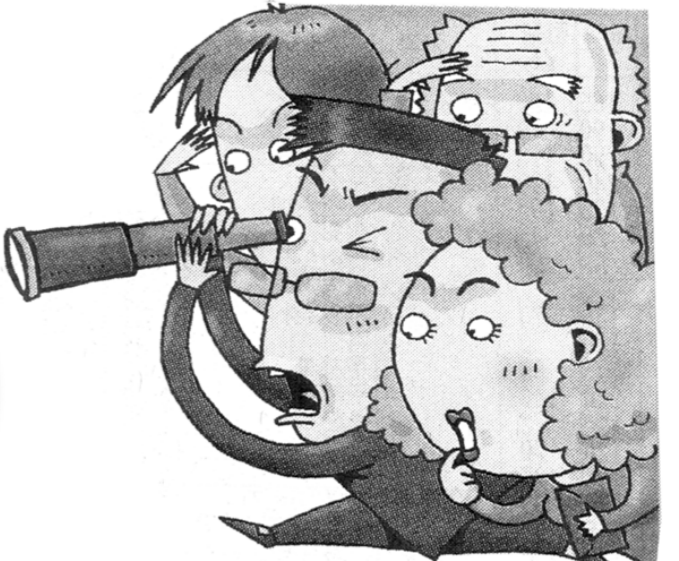
젊음이라는 단어에서는 무한한 힘이 전해진다. 그러나 '젊음'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대학문화는 단지 떠돌고, 흔들고, 비틀대는 모습뿐이다.

양·예술과정 △컴퓨터정보과정 △경제·경영과정 △건강체육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배우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DKBS가 꾸미는 '임석 가요제'는 경주지역 대학생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요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연결고리, 사회복지관

한 학기 동안 3,40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온다는 '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은 설립된 지 올해로 벌써 56해를 넘기고 있다.

한 대학문화의 지표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외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문화로 '신촌문화거리축제'나 흥대의 '10월 거리 전시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메아리

왓 '대중' 윈트

▲광고업계에서 순탄하게 잘나가던 남자주인공의 회사에 뜬금없이 스카웃되어 온 여성사. 여성용품을 한보따리 안겨주며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명령에 이리저리 사용해보던 남자주인공은 실수로 헤어드라이어에 잠겨버린다.

인 놀림감으로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속마음은 남자주인공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의 기본분 중 노동분야에 대해 제일 낮게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4대 개혁의 총출발이 행으로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도 했다.

중까지 들고 나온 어느 가정 주부의 하소연까지 전국민의 속마음을 김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런지 궁금하다.

럼에게 국민들의 모든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 진정 국민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김은선 편집장 ppuzic@dongguk.edu

소나기

김우중, 세상은 넓고 될 곳은 많다



△우선 잡고 보자!!
 △물라~ 알 수가 없어. 김우중 어디에 숨었는~지
 △항상 약자는 밥이었다. 슬픈 현실이다.
 △의리 없이 혼자 뉘냐? 나도 데리고 가라(실업자).
 △우중야 난 나가 알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00 지검장 000)
 △옛말엔 언중유골(言中育骨), 요샌말엔 우중유전(宇中有錢)이랬다(?)
 △김대중과 김우중의 유사한 점은? 노동자만 죽어나가게 한다는 것!
 △꼭꼭 숨어라! 김우중 체포결사대가 나가신다.
 △우중이는 오리무중.
 △대우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라.
 △정태수 리스트를 능가하는 김우중 리스트 때문인가.
 △김우중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포결사대가 프랑스까지 가서 한국 이미지 망치는 거 아니냐?
 △돈 떨어지면 돌아 오겠잖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함께 들고 일어나라. 덕분에 나라 분위가 영~ 우중충하네.
 △내게 돌아와~ 다시 널 볼 수 있게~
 △해의 출장(?)이 너무 길다.
 △안전(?)하고 편안(?) 여행(!) 되십시오.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몸으로라도 때우세요
 △다들 휴양지는 어디로 하실 건가요?
 △나라 골치거리가 사라졌는데 찾기는 또 뭘 다시 찾나?
 △아~ 이젠 집도 없고~ 명에도 없고~
 △이번 기회에 스타덤에 확실히 올라보지 그래??
 △김우중 왓 'I am sorry, 미안하다는 이 말 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오~'
 △'부실과 함께 사라진다~'
 △한 때 당신의 저서를 읽고 느낀 바가 있어 한 자 적습니다 "땀~"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시나요??
 △프랑스 모 신문에서 발매 -한국에서 재벌이란 단어는 실체와 동의어-
 △현상금을 더 올려라.
 △들끼리 없게 조심해야 할걸요.
 △국가보안법폐지! 김대중 정권 퇴진!
 △부형 대우차 노동자의 한을 담아 기필코 잡으리라
 △김우중, 너는 어디든지 쫓 수 있지만 언젠간 떨어진다
 △현상수배 포스터 값이 아깝다

■ 지난해 동대신문을 읽고 ■

아쉬움 남은 노동자 기사 불필요한 정보는 사양

집이 안산이라 외국인 노동자를 종종 보게 된다. 대부분 반월 공단에서 일하는 동남아계통 사람들이다. 지난해 동대신문 기사에 실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크레파스에서 살책을 얹어 달라'는 캠페인 소식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처지를 잘 말해주는 듯 하다. 나부터도 길에서 우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지지분하게 생각되고 깔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제도적인 문제의 보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사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어 한번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내용을 좀 더 늘려 심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 문제 등을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선만규 (사과대2)

지난호 신문기사 중 1면에 있는 학위수여식 기사를 보았다. 학위수여식의 전반적인 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기사 중간에 뇌성미비 장애자인 박성준군의 총장특별상 시상식이나 전체 수석자들의 언급은 학생들에게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사의 진행순서와 각 단과대별 수석졸업자 명단을 굳이 기사의 반 정도를 채울 정도로까지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행순서는 우리학교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전반적인 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수석졸업자 명단의 경우, 독자들은 졸업자 명단을 보는 것이 아닌 행사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 읽히지 않는 것보다 읽히는 기사를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갈임 (관평대 관경3)

강한근성과 절차탁마 자세로 거듭나자

2001년 2월 22일 경주캠 문무관에서 학군단 주최로 입단·승급·입관수료식 행사가 진행됐다. 부총장님과 교직원, 학군 단장님, 동문 선배님,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가 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과 후보생 교육을 성실히 끝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게 될 선배님들도 자리를 함께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이별과 만남이 교차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선배님들의 모습을 학교 교정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학군단에 새로 입단할 후보생들을 보니 기뻐다. 다소 긴장되기도 하였지만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군 41기 입단자들의 행

동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였으나 늘름하고 쾌기 있는 모습에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또한 입관 수료식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가는 선배님의 뒷 모습속에서 강한 근성과 112학군단 특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군 단장님 정신 교육 중에서 '호수에 유유히 노니는 오리가 한가롭게 보이지만 수면 밑의 발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의미 있는 말씀이 기억 난다. 승급을 하는 후보생으로서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가슴에 새겨졌다. 후보생 전원은 절차탁마의 자세로 장교가 되는 그 날까지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중철 (112학군단 정교 후보생)

일상부터 바른습관 만들어 나가야

개강이 가까워질 무렵 경주캠 학생회관 동아리방을 찾았다. 큰 두 달만에 학생회관을 들어섰을 때 이름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다. 동아리방을 가기 위해 2층 계단에 들어서는데 순간 무수히 많은 학생회관 식당 식기들이 눈에 띄었다. 정식에서부터 분식까지, 그것도 식기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한아름 안은 채 말이다. 방학 후 처음 찾은 학생회관에서 함께 가던 친구와 이 광경을 본 나는 학생회관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더욱 거부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동아리방에 들렀다 내려오는 길에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회관 식당이 지난해 19일부터 개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수준이라면 앞으로 학기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학생회관이 버려진 식기로 황폐화 될 것인지 심히 우려 된다.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지성인으로서 대학생의 자세를 찾을 게 아니라 이 같은 일상의 작은 면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주영 (상경대 경성2)



새로운 시작...

봄을 시샘하는 함박눈이 내렸다. 대학에 첫 발을 내딛으며 때마다 펼쳐진 흰 도화지 위에 자기만의 그림을 힘차게 그려가는 당당한 새내기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원대한 계획보다 기본에 충실하자 새학기 생활 내실있게 준비해야

봄 햇살이 가까이 온걸 이제야 알아차렸다. 겨우내 이고 다닌 무거운 옷을 정리하다 문득 흰 라운드 티셔츠 생각이 났다. 나는 주로 옷안에 흰 라운드 티셔츠를 받쳐 입는다. (물론 모두들 그럴 테지만) 각기 다른 색깔 상의 안에 보일 듯, 가릴 듯 타원 귀퉁이의 흰 테두리가 그려지는 모양을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그 티도 잘 안 나는 하얀색 티셔츠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보면 여기 저기 해피고 다닌 먼지부터 닳아 몇 입 먹지도 않은 딱딱이 국물까지 손바닥만한 테두리에 죄 묻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새로 갈아입어야 하는 남패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흰 라운드 티셔츠를 좋아한다. 그래서 일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숨겨둔, 그러나 수줍게 빠져 나온 하얀 티셔츠를 눈여겨본다. 아마도 내가 신경 쓰는 흰 테두리를 바달라는 응석 일거다.

하숙을 하고 있는 동기의 슬쩍 늘어난 목둘레도 좋고, 오래 입어 애매 모호하게 비엔 선배의 신비로운 하얀 티셔츠도 팬했다. 다만 얼마나 테두리를 깔끔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마치 깨끗한 속옷을 챙겨 입는 기분처럼, 현란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겹옷보다 (잘 보이지도 않을) 하얗게 물빨래된 흰 라운드 티셔츠를 챙겨 입는 사람이란 웬지 그 속에 살짝 가려진 심장까지도 깨끗한 라운드 모양일 것만 같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나에게 하얀 라운드 티셔츠가 될 것이 그대에게는 깨끗한 운동화나 날이 선 바지 주름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각양각색의 계획과 현란한 스케줄에 앞서 자기가 세운 기본에 먼저 충실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덧붙여, 수줍은 하얀 라운드 티셔츠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왕윤의 (상경대 국제4)

학생위한 도서관 운영

서울캠 도서관 대출실은 작년 3월 4일 휴관을 했다. 올해 3월 3일 역시 휴관이다. 겨울 방학은 2월 28일까지이다. 12월 방학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도서관에는 운영시간이 공고된다. 단속근무는 방학 시작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출시간은 5시까지이고 토요일은 휴관이다. 그러나 2월 중순이 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3월 첫째주 토요일 대출실 휴관을 공고한다. 그러면 왜 12월에 3월 첫째 주 휴관을 공시하지 않는가! 이것은 도서관측 스스로도 면목이 없어서이다. 그러다가 2월에서야 공고를 하는 것이다. 토요일에도 책을 반납하고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개강은 분명 3월 2일인데 도서관 개관은 학사일정과 무관하게 3월 둘째주 월요일인 것이다. 작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올해도 변함이 없다. 방학동안 단속 근무도 부족해 마지막 토요일까지 굳이 휴관을 하려는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최은근 (국문과 박사과정)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은영, 정현, 상민아! 생일 축하한다. -ppuzic
 △항우야 재대 축하한다. -힐리조
 △종희언니 대학원 입학 축하하구요. 조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연니의 귀여운 동생 경아
 △영일덕덕 출신 이학번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동문회 때 꼭 보길.
 △병찬오빠 선생님 된거 축하해요. -경은이랑 미연이랑
 △인화야, 3월11일 생일 축하해. 한턱 쓰라~ -건축공학과 칠공주 일동
 △민태 선배님! 1차 합격 축하 해요. 김변 호사님 화이팅~ -달주
 △교육학과 현진아, 입학을 축하한다. -00학번 선배가

수고하셨습니다

△아리랑과 중앙문예단 새터공연 수고했어요.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 중앙노래패 이리랑
 △현경! 기사 섬 보느라 고생 많았어. 일 끝날 전하게 한잔~ -OSS
 △3월4일 건축기사 시험 준비했던 학우들! 수고하셨습니다. -YJS

열심히 하시다

△민족사 연구회 16대 회장님, 집행부들 새학기를 맞아 열심히 살아갑시다. -95 선배가
 △법경스님, 다시 4학년이네요. 더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해경
 그리고...
 △5명이 32페이지를 채워나가는 우리 신문사. 최선 다해 최상의 잡지를 만들자

-POST MAN
 △민영 땀구리,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엔 각자 소망했던 바가 꼭 이루어졌음 좋겠다. -악버리
 △상숙아 오빠 선생님 됐다!!! -영화배우 병한 27세
 △정훈아 100일이 천년 같았던 거 알지? 너무 사랑하구 영원히 너만 기다릴게. -지교 JHU
 △경영대 새내기 이우현, 권영조 학생 고마워요.
 △현~ 너에게도 봄이 오구나. 현이랑 잘해봐 ^^

연방글

축하합니다

△동국연극회에서 01학번의 입학을 王王 축하드립니다. 연극회로 오세요~
 △선애랑 용재 오빠의 1000일 축하. 용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만드시는 분덜 수고 많소. △은숙아 방학동안 돈 버느라 수고 많았다. △수위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열심히하시다

△드디어 개강이구나! 파릇한 청춘도 풀이 난다. 앞으로 공부도, 놀기도 열심히 하자. 히히~
 △새내기도 현내기도 개강했으니 열심히

부하고... 열심히 놀자구나!!
 △인제 진짜 수업 열피미 들을 꼬야
 △은경~ 이번학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걱정좀 덜어드려라!!! -MH
 알립니다
 △DUCC 신입생 大모집 중... 캠퍼에 관심 있는 이들 모두... 학생회관 3층으로 오세요!!
 -캠명환영
 △중앙풍물패 『불휘』갈 때가 없나구?? 학생회관 3층으로 와~
 △5일 동국음악회 개강총회 합니다.
 장 소: 동아리 연습실 / 지참금: 만원
 △마음소리 개강총회 해요. 동방에서 8일 날 늦은 6시에 봐요~

그리고...

△수희야! 싸람해. 남은 대학 1년 잘 보내. -HS
 △이제 또 니 맨날 봐야 되는 구나
 △야! 윤씨...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미리안! 방들이 해자지? 언녕 날잡아라~ -JH
 △주현아~♡ 너의 그 아름다운 눈에 훌쩍 빠져... 몰라몰라임 @.@
 △희아... 선물 고마웠어... 인형 만드느라 힘이들었지? 너무 나중에 이쁜 인형 만들어서 선물할게.
 △관배야~ 군대 잘 갔다와라!
 △수고과 01학번 새내기들아! 입학 진심으로 축하해.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ongguk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우루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